



순복음은혜교회 헌당감사에배 드려

호남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 한기봉 목사) 순복음은혜교회(담임 왕성엽 목사)는 지난 7월 5일(월) 오전 11시 헌당감사에배를 드리고 교로 나 39 종식을 위해, 전라지역복음화를 위해, 전 세계와 땅 끝까지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을 다짐했다.

전날 무안군 해례면 민송로 1059 동교회 사당에서 드린 헌당감사에배는 지방회 총무 민승복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홍관희 목사의 대표기도, 화제 김순영 목사의 성경봉독, 예하성광주신학교 학생들의 찬양 지휘봉을 한기봉 목사의 설교, 재무 조사방 목사의 헌당기도, 목포시나산교회 서베드로 목사의 특별찬양 순으로 이어졌다.

한기봉 목사는 출 31-9 말씀을 본문으로 "정전간직이란 제국의 설교를 통해 '정전'을 이롭게 간직하고 가꾸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기쁨과 영광이며 성전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 전을



왕성엽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담임



가득 채워 하나같이 영광 돌릴 수 있기를"을 축복했다. 2부 헌당식은 순복음은혜교회 담임 왕성엽 목사(호남지방회 중경회장)의 인도로 교단 중경총회장 김양민 목사의 헌당축복기도, 순복음은혜교회 간직위원장 김형숙 안수집사의 간직 헌당 경과보고, 헌당의 시간이 있었으며 순복음은혜교회 담임 왕성엽 목사의 수전 및 봉헌사, 공포의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이어 축복의 시간으로 정광희 목사(용남교회)와 정동철 목사(능려교회), 최정식

목사(예하성광주신학교 학장), 조남연 목사(송죽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순복음은혜교회 담임 왕성엽 목사의 광고, 호남지방회 중경총회장 김경구 목사(원도순복음월암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순복음은혜교회 헌당감사에배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드려졌으며 식사는 여러 곳의 식당으로 나눠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레드 인원이 안되는 분들에게는 단체편을 전달하기도 했다.



회복교회 설립감사에배 드려, 복음전파 헌신 다짐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6월 28일(월) 오전 11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24에 위치한 회복교회(담임 권승철 목사)에서 설립감사에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영근 목사(순복음광안교회)의 사회로 지교회 서기·회계

이태우 목사(신한교회)의 대표기도, 배영환 목사(순복음전원교회)의 성경봉독이 이어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독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고전 3:1-9 말씀을 본문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수전전 전 고흥읍 지역을 다니며 기도했던 것의 응답이 된 것만 같아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취임하는 담임목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밭을 맡은 농부로서,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회복교회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길 독촉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회장의 설립 및 취임 축하 헌신 이후에는 축사와 관련 시간을 가졌는데 중경지방회장 김갑진 목사(새여수순혜와 진리교회), 본교단 중경총회장 김양민 목사(광주순복음교회)의 권면과 지방회 중경총회장 최형택 목사(광안순복음교회), 정찬식 목사(고흥송곡교회), 남원중앙교회의 정종승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권승철 담임 목사는 취임 인사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렸으며 기존과 같이 많은 도움으로 살아나신 영혼들에게 다가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또한 전도사(순복음광안교회)의 헌금기도 이후 중경지방회장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은혜로운 설립감사에배를 모두 마친 후에는 회복교회에서 준비한 감사의 선물과 풍성한 오찬으로 감사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같이 영광을 돌렸다.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 인재 양성 다짐

예하성부산신학교 청도수양관에서 교수회의 및 수양회

부산신학교

예하성부산신학교(학장 한병점 목사)는 지난 6월 28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장기영 목사) 청도수양관에서 교수회의 및 수양회를 갖고 신학기를 준비하는 이사장 장기영 목사부터 운영진과 담임교수진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기로 했다.

초목의 물결이 완연히 웃을 길어오는 산야. 앞에는 호수가 잔잔한 물결을 연이어 만들어 내고, 뒤로는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초목물결 가득한 뒷 산의 표광으로 전혜의 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경복 청도군 풍광면 덕안리 세움교회 수양관에 모인 운영진들은 올해를 신학의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양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감사예배는 교무처장 사미근 목사



의 사회로 시작되어 학장 한병점 목사의 대표기도, 이사장 장기영 목사의 설교, 교수정규영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장기영 목사는 설교를 통해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헌신하는 운영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성경말씀에 세워지는 바른 신학전수를 위해 열정을 쏟는 교수진들을 격려했다.

예배 후에는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해,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교단과 부산지방회

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부산신학교와 운영진, 학생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이사장 장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 담임)가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시간을 가졌다.



이사장 장기영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순복음세움교회 청도수양관 전경

“기부와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 전파합니다”

임마누엘교회 방은혜 목사, 김방락 장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것이 필요”

서울중앙지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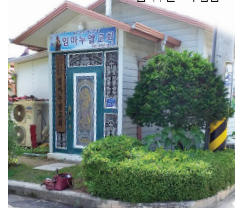
사망의 열매 사회복지공동체교회
가 2007년 설립한 '익연 이상과
백기부자'에서 소사이어티 회원이
회원으로 가입된 임마누엘교회
김방락 장로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 임마누엘교회(담임 방은혜 목사)는 30여 년의 목회사역을 감당해 오는 동안 하나님의 밭을 전파해 이룬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해온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임마누엘교회 담임 방은혜 목사는 지난 6월 28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회 회관에서 열린 '익연 이상과 백기부자'에서 소사이어티 회원이 회원으로 가입된 임마누엘교회 김방락 장로



방은혜 목사
임마누엘교회 담임



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로써

방 목사는 늘 열려서 함이 되어 주는 남편 김방락 장로와 함께 지교회 같은 이웃들에게 피나차가 되어주려고 정성을 쏟았다. 오갈 데도 없고 땅장 가니도 걱정해하고 건장한 안의 황아 정한 한들 보냈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위로 받고 기쁨의 열매를 맺어 화복하고 자신들이 있어 할 곳을 찾아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오해며 방은혜 목사와 김방락 장로가 더 감사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 김방락 장로는 불신앙으로 도움을 주었다. 부처에서 해온 일들이 아니라 기쁜 마음과 기쁨과 공평한 마음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들을 아끼고 절약하여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고자 했다.

남편 김방락 장로는 군무원 정년퇴직 후 경비원 일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월급을 쪼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돼라고 기부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체교회에 2007년 설립한 '익연 이상과 백기부자' 클럽인 '소사이어티' 회원이 될 정도로 기부와 나눔활동을 보여왔다. 김방락 장로는 2017년 직장에서 은퇴한 후부터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김방락 장로는 한 순간에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내 방은혜 목사와 철저한 근검절약 생활과 불필요한 지출은

일체 스스로에게도 허용하지 않는 자진고백 생활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만 스무 살 되던 해 군대에 지원해 특전단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등 8년간 군 생활을 하다 중사로 전역했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으로 2년간 일했다. 17년 전 정년퇴직 후에는 출판 경비원으로 일했다. 월 12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 안 먹고 안 쓰며 모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 기부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기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 주고 싶었다고 했다.

오희순이 하는 일을 원순이 모르게 해야 하는데 라며 부끄러웠다. 김 장로는 낙하할 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내가 좀 낙하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적은 것 하나라도 마음을 담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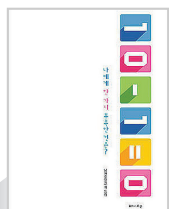
17년 전 스무 살 되던 해 군대에 지원해 특전단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등 8년간 군 생활을 하다 중사로 전역했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으로 2년간 일했다. 17년 전 정년퇴직 후에는 출판 경비원으로 일했다. 월 12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 안 먹고 안 쓰며 모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 기부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기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 주고 싶었다고 했다.

김 장로는 이 같은 선행은 지난 6월 28일(주) 오전 11시 30분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명) 프로그램에서 김방락 장로의 기부 및 나눔 봉사활동을 방영하여 선한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화제의 신간 / '서정복 목사의 세번째 책'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10가지 신앙원리

10-1=0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생사희박, 흉망성쇠로 인해 희로애락이 교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배척을 받은 제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때 10-1=0 지침서는 세상에 합당하지 않고 나를 나 되게 나를 제자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역자를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때가 가까웠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들 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정복 목사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익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병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신상우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식 목사, 연용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의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학교 교수)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지도위원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익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송화선 목사, 송화선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부회장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정병환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권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익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경환 목사, 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송화선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곽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상임총장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중권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후원회	한상문 장로
후원회	배성만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자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산 장로, 황익태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상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장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메뉴얼물집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알레르기성 질환,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고려대학교 수목성 교수님 임의로 세계특허)

2)콜리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이로신

(전북대연구논문) : 태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4)호흡기, 위

(호주대연구논문)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호주대연구논문) :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밀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7)식이섬유

(호주대연구논문)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할 때(호주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핵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교단공과 신청

출판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 아동부 공과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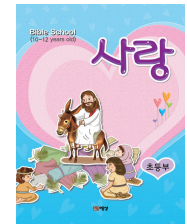
- ① Fax : 02)2677-5181, 031)441-1793
- ② e-mail :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 동원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은혜와진리교회

문의

전 화 :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봉사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계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중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 (박흥열 목사 수석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융로 82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남자가 여자라며 여탕에, 평등법 인권 침해”

바른인권여성연합, 7일 기자회견서 여성인권 침해 평등법안 철회촉구 성명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상대표 이봉화, 이하 여성연합)은 지난 7월 7일(수)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정의당 정책위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창민 의원의 24명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여성인권 침해하는 나쁜 평등법 즉각 철회하라! 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여름 정의당 정책위의원이 나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지 1년이 만에 민주당 이창민 의원은 6월 16일 평등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들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유한 이래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안은 평등법을 전횡하여 사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법 제정이 왜 이토록 강하게 지적하는 것인가? 이 법이 만들어지기 가장 환호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법이 제정되면 가장 수혜자들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차별을 하지 않는데,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지는 대내외 사안이 어디 있었는가? 국민 88.5%가 찬성하는 법이라고 떠들고 말만 하지 않은가?라며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술그룹 7명이 하듯이 나쁜 요소들이 숨어 있으며 양의 발을 쓴 놈과 같은 참으로 무서운 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작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는 그 법이 실제 로 현실이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1,500명 가량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안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하는 남성 성기를 가진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이나 사우나, 탈의실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90%가 가까운 절대다수의 여성들은 반대했다”며 “이것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것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했다.

이와 “작년 연말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남성 여성 600명이 들어가 20여 분 머무른 시간에 대해 우리 경찰은 이것을 주검임죄로 판단해 기소를 유예하는 관할 처분을 내렸다”며 “이와 대우



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 위반이고, 성적 수치심, 성적 모욕감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성추행이며, ‘성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외치며, 성적체성의 혼란에 관한 수사기관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또 “일주일 전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한 여성교객이 성전환을 하지 않은 여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잠잠할 적이 형의하는 일이 있었다”며 “관련 영상이 퍼지면서 LGBT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 사이에 유혈충돌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항의에 나선 여성 교객이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잠잠할 적이 청 정제성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다’며 교객의 항의를 수긍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평등법을 수행한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의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여성들은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은 자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2019년 6월에 긴 머리 기발을 쓰고 핑크색 후드 티셔츠와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중 남성이 수영장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붙잡히기도 했다”고 했다.

이와 “여기서 우리가 건넌서는 안 될 중요한 사

실이 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너무 끔찍해서 일어 났기도 힘든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소아 성폭행 사건인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바로 화장실이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런데서 “평등법 23조는 ‘성인, 공공시설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 임대, 매매, 제반,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LA 잠정법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조두순 같은 범죄도, 성별정체성인(유)은 여자 화장실을 합법적으로 다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이 뿐 아니라 평등법이 통과되면 스포츠 경기나 대학 입시, 각종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회를 빼앗게 될 것”이라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위험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평등법은 LGBT를 성별에 끼워 넣으려는 기반적 시도이며,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이라며 “이 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과 장남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LGBT를 위해서 여성들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서 “국회는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조문은 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간 안내

예수 이름의 비밀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이름을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크리스천조차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함부로 부르는 것 같다. 그러나 오직 '예수' 이름이 우리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소명의 이름이다. 저자 한홍목 박사는 이 책에서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16가지 이름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 나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주님의 인격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구체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답답하고 힘든 시기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보증을 확실하게 될 것이다. **저자 : 한홍목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1-07-12 | (160*210mm 352p | 판매가 : 19,000원)

예수님의 기도 학교

주기도로 배우는 자유와 신뢰 그리고 공동체

기도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일출 그로스 스트리트? 무릎 꿇고 오레 버티기? 통성 기도 방법? 전혀 아니다. 예수님의 기도 학교에서는 기도에 앞서 하 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배운다. 복음의 깊이와 높이를 배운다. 아버지께 받은 은사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내용 있는 기도로 나아간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염려, 불안은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러나 기도가 어려운 당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당신, 함께 기도를 돕고자 필요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도 학교를 권한다.

저자 : 이장규 | 출판사 : MP
발행일 : 2021-07-06 | (135*200mm 344p | 판매가 : 17,000원)

종독과의 이별

저자는 종독이 정서적인 결핍과 뇌 호르몬 작용의 복합적인 결정체임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대부분이 '종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살아있는 동물일 수 없다. 잠시 그 기쁨을 만끽하지만 그것(종독)을 잃는 날 수 있는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종독의 모습은 여러 가지다. 일 종독, 일종 종독, 일종 종독, 마약 종독, 관계 종독, 이종 종독..... 목회자이자 임상심리학 박사인 저자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임상심리학자 이론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종독에 취해버리는 이유와 문제들을 살펴보고, 과학적인 방법과 영적인 해법으로 '종독' 해독의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종독자들 눈과 귀, 마음과 지각에 꼭 필요한 자료와 대안들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종독 문제를 인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저자 : 노성현 | 출판사 : 홍성사
발행일 : 2021-06-10 | (148*210mm 375p | 판매가 : 14,000원)

간추린 한국교회사

하나님이 우리나라 역사와 교회 속에 어떻게 심어놓으셨는지를 시간과 인물, 이야기, 기도로 살펴 준다. 본격적인 한국교회사 이야기는 영국인 마리아 맥스웰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을 가져다 준 인물로 소개하며 시작한다. 이후 감자 파종과 포도 나무로 제자임을 알려 주고 최초로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선교사로 잘 알려진 칼 귀크리프 박사, 한국 땅에 들어서자마자 순교했지만 복음의 불씨가 된 코넬리우스 선교사 등 복음 전파의 개척자를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의료, 교육, 문화, 교회 개척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선교한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시대순으로 국내와 상황과 함께 서술해 나간다. 이 책을 기록된 한국교회사를 읽으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믿음으로 한국 교회의 나아갈 길을 볼 수 있다.

저자 : 강기현 | 출판사 : CLOU(독교문서선교회)
발행일 : 2021-07-26 | (152*225mm 320p | 판매가 : 15,000원)

세기총, 한인여성선교사 초청 선교워크숍 개최

강연과 쉼 통해 선교 열정의 재충전 시간 가져

시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여성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위로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한양여자대학교 청소년수련원에서 '여성선교사 초청 선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기총과 KWMF 한인여성선교사회 소속 한인세계여성선교사회(회장 배정선 선교사)의 공동주최, 세기총 선교지원협력위원회(위원장 황의준 목사)의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세계 33개국의 70여 명의 한인 여성선교사가 참석해 1박 2일간의 일정을 함께했다.

첫날 환영사를 전한 황의준 목사(세기총 선교지원 협력위원회 위원장)는 “코로나-19가蔓延하여 약한 노약자에게 더 위험한 것처럼 영적 생명력이 있는 건 강한 교회, 건강한 선교대원 격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격려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말을 한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는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국이 된 것은 바로 여성선교사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 힘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세계 복음화의 가장 선봉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인세계여성선교사회 회장 배정선 선교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여성선교사들에게 꿈을 심어 주기 위하여 오늘의 모임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고백하는 워크숍이 되길 소망했다.

이날 개회예배는 한인세계여성선교사회 회장 배정선 선교사의 사회, 강기현 목사(세기총 공동대표)의 기도, 정월향 선교사(태안시)의 특별찬양에 이어 김요셉 목사(세기총 중대대표회장)가 “마태에 성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뒤 고시영 목사(세기총 중대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요셉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선교의 기초는 예배”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된다”고 말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전했다.

“비전을 받고 선교를 꿈꾸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 첫 번째 시간에는 이경화 선교사(원본)가 사회를 맡아 황의준 목사(세기총 중대대표회장)가 인사와 운영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둘째날 오전 강연에서는 공동대표회장 김태성 목사의 사회, 김요셉 목사(세기총 불기미자 회장)의 대표 기도, 에스더 최 선교사(중국의 특별찬양에 이어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가 우대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는 설교를 통해 “기성 위에 한발걸음 나뉘는 발견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선교에서나 자신이 변하여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어 신광수 목사(세기총 사무총장)의 광고와 조일래 목사(세기총 불기미자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와 “여기서 우리가 건넌서는 안 될 중요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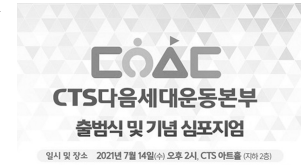
다음세대 세우는 행복한 플랫폼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과 기념 심포지엄

8개 공교단이 연합해 설립된 CTS기독교TV(이하 CTS, 회장 김경환)는 '한국교회 부모되기 다음세대 세우기'란 슬로건을 세우고 7월 14일(수) 오후 2시에 CTS본사 아트홀에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과 기념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기념식은 김현, 그리고저출산과 빠른 고령화의 시대에 다가가는 대한민국, 이러한 취약계층과 경제난 속에서 대한민국 다음세대가 살아야 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교회의 허리와 허리를 하고 있는 다음세대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은 어째서냐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적했지만 왜 이런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까? 다음세대에 대한 고민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다음세대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연합기관인 CTS는 다음세대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에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지지와 동행이 이뤄지도록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 행사에는 먼저 1주 출범식이 먼저 진행됐다. 정·교계 인사들이 다져 참석한 가운데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총재 이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교회의), 신정호 총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강석 총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의 대화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과 국회조각기회 김진표 회장, 한국교회총연합회 장종현 대표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한국교회총연합회



회 상임회장이며 활동성교회 김경준 담임목사가 비전 기도를 하며 1주 출범식을 마쳤다. 이어서 진행된 기념 심포지엄은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와 연합'이란 주제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한일 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강연은 목회자 데이비드 조지슨 목사가 '다음세대가 한국교회에 대한 한 사회 인식도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서 '부모와 교육을 책임지는 지역교회'란 주제로 당장동일교회 이수문 목사가 강의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 김경철 총재는 “지금부터 다음세대를 세우는 데 투신해야 하는 시간이다”라며 “지금 대한민국 근대사의 주역은 한국교회와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배웠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믿음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사의 전 분야에 리더로 세워져,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역으로 세워야 하기에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밑거름을 심어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글로벌6K ‘2021 SNS 제리캔챌린지’ 진행

월드비전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2021 SNS 제리캔챌린지’를 진행한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영환)은 이달 31일까지 글로벌 6K 포 워터(Global 6K for Water) 2021 SNS 제리캔챌린지를 진행한다

이 챌린지는 ‘글로벌 6K 포 워터’ 캠페인의 일환으로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6km를 걷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릴레이 기부단 활동이다. ‘제리캔’은 물을 나르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물통을 뜻한다.

참가자는 자신의 제리캔을 들고 걸으면서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다.

‘SNS 제리캔챌린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리캔을 들고 6km를 걷거나 달린 후, 인스타그램에 인증샷과 필수 해시태그(#2021제리캔챌린지 #한국제리캔 #한국제리캔 #월드비전 #global6k #6kforwater)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업로드 시 챌린지에 참여한 다음 주 3명을 지목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챌린지 시작에 맞춰 크루고스트·윈스타·WRC 등 다국적기업과 후원사들이 후원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는 한국제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윈스타



인종 포스트 1건당 1만원이 탄자나아 온다비시 식수 사업에 후원된다.

월드비전 조영환 회장은 “10미터에서 멀게는 30미터까지 물을 가득 채운 제리캔은 아이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며 “특히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frican의 걸음이 더욱 의미 있도록 후원에 함께 해주신 한국제리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생명나눔 알리는 ‘제19회 사랑의 대음악회’

장기기증운동본부... 군산시 대표하는 문화공연, 음악인 9명 재능기부로

(재)생명나눔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탁)가 최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9회 사랑의 대음악회 ‘감사와 희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좌석제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400명 규모로 진행됐다.

군산시와 함께하는 ‘사랑의 대음악회’는 매년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리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음악회 주제인 ‘감사와 희망’은 생명나눔 운동에 헌신한 이들에게는 감사며, 장기기식을 예매해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로, 부제는 ‘다시 사는 세상, 함께 나누는 생명 - 나로부터 시작되라’이다.

특별히 전북지부 홍보대사 중 음악 분야 전문가 9명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의미를 더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생중계 시 기증인과 장기기증인 유가족,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지역민 등을 초청해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음악회 1부 ‘감사’는 테너 최재영이 부르는 프란체스카의 ‘그대는 나의 모든 것’으로 본격적인 문을 열었다. 이어서 플루티스트 고우리가 연주하는 ‘이노베이션 노부부의 이야기’와 소프라노 오영진이 노래하는 ‘바람, 테너 김성진이 꾸민 ‘영웅’이 차례로 울려 퍼지며 관객의 귀를 즐겁게 했다.

2부 ‘희망’은 소프라노 남정숙이 부르는 Albert Hay Malotte의 ‘주기도문(The Lord's Prayer)’으로 시작했다. 이후 플루티스트 김민선의 ‘상사화’ 연주

가 이어졌으며, 소프라노 정수희가 노래하는 오페라 ‘노예의 길’의 가장 대목적인 아리아 ‘I Dream I Dwell in Marble Halls’와 테너 이상선의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끝으로 강령환 신디사이저와 구성진 가락의 장구를 연주하는 전통타악기그룹 동남풍의 ‘비나리’ 공연이 더해지며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마지막 무대는 출연자와 관객이 한데 어우러진 우정의 노래로 장식됐다.

한국연구재단 장기 과제 선정되다

아신대학교 नेपाल선교연구원 신성임 연구원

아신대학교(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नेपाल선교연구원(원장 권준호, 목사)의 연구원 신성임 박사가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 연구 과제는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가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여 우수연구인력 육성 및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 과제

는 5년 장기과제로서 첫 2년 지원 후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성임 박사가 제안한 연구 주제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한국 기독교의 선교 패러다임 변화 - 타자성과 현대를 중심으로”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50만 명을 넘고, 국내 이주인 선교가 확대되고 있는 최근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이다.

신성임 박사는 “다산인 축제의 성황을 통해 नेपाल선교전망”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2020년 2월 주안대학교를 졸업했다. 아신대학교 김현성 교수는 외부 논문 심사위원으로 신 박사의 학위 논문을 접했다. 그 후, 김 교수는 신성임 박사를 नेपाल선교연구원 연구원으로 초빙했다. 신 박사는 2020년 한 해에 모두 5편의 연구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하며 탁월한 연구 능력을 보여주었다. 2020년 12월 한국신학회가 수여한 신학자 우수논문상을 신성임 박사가 중경학자 우수논문상을 김현성 교수와 나란히 수상하여 이들의 नेपाल선교연구에 대한 열정과 수고를 학계가 높이 사기도 했다.

통곡의 벽 터널 내 새로운 경로 공개 예정

이스라엘 관광청은 최근 제2 성전 시대 건축물의 일부가 발굴돼 8월 초부터 예루살렘 통곡의 벽 터널 내 새로운 경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곡의 벽 유산 재단과 이스라엘 문화재 관리국(MA)은 통곡의 벽 터널 및 성전산 주변 지역의 지속적 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제2, 3차 성전시대의 예루살렘 도시 및 과거 성전의 흔적을 찾아냈다.

통곡의 벽 터널에서 이전에 발굴된 건축물은 성전산으로 이어진 길 위에 위치했던 기원전 20~30년대 건물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산 외부에서 발견된 제2 성전 시대 기와 장엄한 공공건축물 중 하나로, 주요 고고학자들이 성전 부지 및 성전산 입장 전에 접견했던 시의회 건물로 추정된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코로나 시대에도 이어지는 가족세트전도!

“메달라버린 사바에서 만나는 생명줄!”

코로나 시대에 능력을 행하는 가족세트전도. 우리 인생의 사바를 메달라고 간조하게 만드는 원인들은 뚜렷해져만 가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소망의 불빛이 희미해져, 너 나 할 것 없이 불행에 섰다. 그러나 결론으로 생명의 사바니움을 따르자면 “슬로하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자면 생명의 줄이 나타나 내게 어떤 불행이 생기는 것일까?”

“이제 이 고통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구나.”
“앞으로 고통되지는 않겠는가?”

세상의 물결은 매말라 버린 사바가 되어가고 내 마음의 호수에서 일렁이던 시원한 물결도 사라지고 모래사이에 뜨거운 햇살과 바람에 증발해 버린 채 자갈과 절망과 두려운 처지만을 바라보고 한탄하는 교회와 시대 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열매지는 이렇게 메달라버린 날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를 한탄하지 않았음을 사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현재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줄을 끌어 내리고 있었다.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사바를 (영성 18:30)에 “오늘”이라는 급박한 시간을 전지자로써 타인들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줄을 끌어당기고 있다.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를 이름이 가고 계시는 박영수 목사는 훈련생들을 인도하여 메달라버린 사바에서 숨겨져 있지 못하고 있는 물고기들을 향해 생명줄을 던지는 심정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줄을 끌어당기기로 작정한 처절한 자신과의 사바를 밟고 있는 순종적인 목부님을, 외로움과 절망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그 생명줄을 하늘로부터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

“영접하신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보배에서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을 다시 연결시켜 주는 가족세트

의 처절한 몸부림은 갈멜산에서 밟았던 열매의 외로운 사바와 같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만 한다는 열매의 호소의 목소리가 갈멜산 골짜기를 뒤덮는 것과 같이 각 교회마다 찾아 다니며, 영혼구원의 사명감을 호소하며 무너져가는 제단을 수축하는데 자신을 투영하는 마지막 시대의 열매임을 보는 것 같다.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이름 앞에서 모든 무릎을 꿇고 하신 (벧 2:10)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발현되어지는 현상을 박영수 목사님은 심층적으로 확인 시켜주고 있다. 열매의 호소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줄이 박영수 목사의 눈물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줄이 메달라버린 사바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을 끌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비밀과 같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맘모니즘에 중독되어진 이 시대에 보여지는 라오다게아적인 패러다임으로 고착되어진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하고 배려된 사바의 영혼들의 마음을 거침없이 영접하도록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키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시키는 거룩한 승리의 기쁨을 독하게 들려주고 있다.

열매를 통해 가능성을 발휘하자 주신 것과 같이 이제 박영수 목사님을 통해 메달라버린 사바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지게 하여 세상을 경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훈련을 참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노이다.

예일교회 황세아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속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로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상태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기침의 효능)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v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051)803-3927
- F A X: 051)581-0198
- e-mail: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정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062)952-7004
- F A X: 062)953-5004
- e-mail: sm1004@daum.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041)567-3004
- F A X: 041)575-3171
- e-mail: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상웅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충북 청주시 사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043)274-2265, 273-2211
- F A X: 043)237-2705
- e-mail: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www.c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입점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단 부산지방의 중경회장 한명점 부사와 고영권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 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길로 479번길 43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 회화 권사



바람결에 말씀하시니...

자정이 넘어 하루가 시작되는 날
열린 창으로 부드럽고 상쾌한 바람이 나를 불러 앉
힌다.
모두가 잠든 이 밤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바람결에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나의 맘과 나의 몸을 두루 두루 토닥이시니
금새 내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찾아주실 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셔서..

아가야~~
무슨 문제가 널 힘들게 하지?
앞이 캄캄하고 길이 안보일 때
너는 내가 길을 내는 분이랴 믿고
나만을 바라보지 않았니?
이제껏 나를 만났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렴..



문제 앞에 쩌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진심으로 한결을 한결을 나갈 때
내가 길이 되 주었던 것을 기억하게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바람 불던 곳에...

CTS 창사 26주년 창작뮤지컬 '미라클' 기적같은 위로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심어주는 공연으로 기획

CTS(창작 뮤지컬)가 창사 26주년 특별기획으로
창작뮤지컬 '미라클'을 선보인다.

CTS가 주최하고 크리스천문화예술원(대표 김수
배)이 주관하는 창작오페라 '미라클'은 오는 10월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장담식 원작에 영상촬영과
입체음향 기술이 접목되어 다시 태어나는 오페라
'미라클'은 김수배 대표가 수작과 편곡을 맡았다.
6월 26일 금나래아트홀에서 열린 공개 오디션에
는 1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예선을 통과한 33명
이 열린 경쟁을 받았으며, 실력들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미라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여
러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공연
으로 기획, 제작되며 특별히 코로나의 치료와 방역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준 의료인
들을 초청하여 위로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CTS와 크리스천문화예술원은 5월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 의도와 취지를 밝히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CTS예술단 김기배 단장과 김수배 대
표, 백순제 음악감독, 주연 정성미 소프라노가 함께
했다.

김수배 대표는 '미라클' 공연이 지친 분들에게

위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무대 기회가 줄어든 예술인과 공연 관계자
들에게도 기회 제공의 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오페라 '미라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의 첫 기적,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
여 주인공인 신부와 신부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만
들어 대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

공연은 10월 15일과 16일 CTS아트홀에서의 갈
라콘서트 3회 공연에 이어 11월 5~7일 KBS아트나
홀에서 4회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사설

성경은 불변의 진리다

어찌나 아련하나 모두 10여 년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저분이던 당원이나
아지 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 저사람도 대통령이라고
했었어? 라는 사람들도 뒤섞여 있다. 현행한 국민들은
2022년 3월9일에 정확하게 선택하여 이상하게 기술어진
나라가 제대로 바로 잡히기를 학수고대(鶴首渴待)하
고 있다. 국민이 현상해야 할 이유로는 세상을 어둡히
는 리더를 구원할 줄 알아야 국민(國民)의 삶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어떤 리더를 경계해야 한다. 첫째 폭군(暴君)
이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기 한 몸만 받들고 신하들의
간언을 들리고 스스로 불확하는 유형이다. 둘째는 혼군
(昏君)이다. 현명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모자라서 나쁜 말을 듣는 리더를 말한다. 세 번
째는 용군(勇君)이다. 마음이 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해서
나라와 백성들의 길로 물어 가는 리더를 말한다.

조선조 시대에 폭군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연산군이다. 자. 친 육신과 잔인한 복수심 때문에 나라
는 파멸하고 백성들을 고통하게 만든 최악의 리더다. 연
산군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혼군이다. 나라 일을
잘못한 자들이 모두 다 반정에 공이 큰 신하들로서 무
식한 사람들 찬사였다. 조광조 등이 일임을 제대로 해보려

했으나 모함에 빠져 기묘사화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중종은 나쁜일을 어지럽히고 민생을 망친 리더였다. 선
조는 용군(勇君)이었다. 백을 배를 줄을 모르고 좋은 말
만 듣기를 좋아하고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리더다. 불
리할 뎡술이라고, 권했다 싶으면 나라를 리더로서
나라를 후퇴시키고 신하의 구렁이에 빠뜨리는 리더다.

리더는 언행일치가 생명이다. 그때그때 다른면 속의
간에 파국에 이르게 된다. 구중지왕(口中之王)이란 말
이 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입 안에서 지워버린다는
뜻이다. 즉 자기가 한 말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슬그머
니 지워버린다는 뜻이다. 이제명-기분 소독 일 정도는
강조해온 핵심 정책을 스스로 지향으로 지워 버린 것이
다. 기분 소독을 비탄하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비난했
었는데, 그렇다만 다음 구중지왕은 무엇일까?

성경은 여러 가르침 가운데서 비교적 나은 가르침
중 하나가 아니다. 성경은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성이 반드시 따라야 할 불변의 진리
다. 그리고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만 적용되는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다.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과 가정,
나라에 주시는 말씀이다. "...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
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 28:1)

민노총의 불법집회와 정부의 태도

정부는 지난 해. 본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를 원천적
으로 봉쇄했다. 당시 8·15 집회 시위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66명이나 났고, 개천절에 75명, 한글날에 51
명이 나왔는데도 당시 노경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을 '실인자'라고 규정하여懲戒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은
'연애살인마' '집단살인마' 혐의로 비난받아야 한다.
지난 해 대통령은 야권 시민들의 집회를 '국가 방어 지
스'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
서할 수 없는 행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번의 민노총 집회는 국가를 부정하고
정부의 자체를 따지지 않는 '반국가적 행위' 혐의로 규
정해야 격이 맞는다. 민노총의 구성원들도 모두 국민이
고, 애국시민들도 하나같이 국민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들도 모두 국민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서로가 조상하고 염려하는 일
들을 민노총이 보란 듯이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그것도
기본적인 방어수칙도 무시하면서 집회를 한 것은, 자기
들만의 선택과 합의를 과시하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
느 나라 국민이란 말인가?

정부는 이들을 '법'과 '원칙'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만, 안타깝게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이집에 민노총이 정부위에 군림한다는 국
민들의 수군거림을 무시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가의 법과 원칙이 엄격히 살아있음을 분명
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법에 특권과 면적을 허용하면, 그
법률체제는 이미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 허술한 방식으
로 국가의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수가 없다. 이번 민노총의 불
법집회를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에 따라, '이것이 나라의
다'라는 불변의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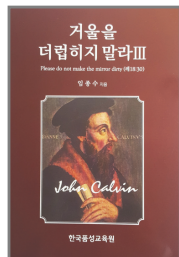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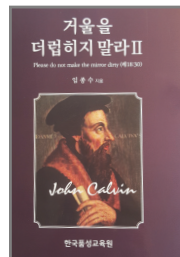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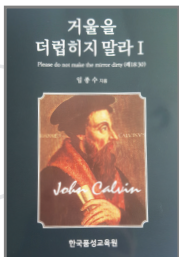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환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번만 강조하
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
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
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했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제자들을 7권 출판
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경, 덕성, 인격, 개성을 배울
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개인관계 부분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
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몰라야 할 세력들 즉 집과 국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
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
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평등법안은 폐지되어야한다”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한다”

국가보안법 존속은 공산주의와 대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국가보안법폐지에 국민 64.6%가 반대하고 찬성이 18%인데 발의한 73명 의원들이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수년간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이고, 지독한 공산주의와 대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밝히는 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다. 또 제2항에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법 적용에서 과잉을 금지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편할 일도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혹시라도 이런 주장이 국가의 안위를 외면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매국적, 혹은 이적적(利敵的) 행위라고 된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다운 자유는 지킬 것은 철저히 지켜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만 초법적 발상이 아닌, 법범을 했을 경우 형범에 연동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우리가 지극 자유와 집시는 이런 법범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참다운 자유는 지킬 것은 철저히 지켜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안보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겨, 침략하려는 아수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기울어진 이념을 구원하려는 세력들의 의도된 목소리를 막아야한다. 국가보안법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를 제거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 된다. 국가 안보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평등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파괴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안은 차별(금지)영역의 제한이 없어서 설교, 전도 등 종교와 개인 사생활에 직접 적용이 되며 그에 따라 부작용 및 폐해 발생의 위험성도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평등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파괴됨으로 인해 국가의 체제가 신 전체주의국가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안은 자유민주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헌법 20조)를 박탈한다.

이상민 의원 등의 평등법안(발의 2021.6.16.)은 양성 평등한 가정을 보호하는 헌법 36조를 부정하고, 생명과 성의 윤리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헌법 10조)과 자유민주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헌법 20조)를 박탈하는 위헌적 악법으로 평가된다.

평등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 국민들을 기망한다.

이 평등법안은 평등을 부추기면서 실상은 여타의 법령과 조례 등을 성해해, 성해방의 동성에 젠더주의로 바꾸는 초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전제혁명이다. 이 평등법안의 적용대상은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교육, 기업, 정부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망라하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선명한 국민들을 현저히 기망하고 있다.

평등법안은 전체주의적 젠더독재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동성애나 제3의 성을 정상이나 보편적 가치라 주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괴롭힘이나 차별로 제재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젠더독재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상민 의원 등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헌법 19조)와 자유민주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헌법 10조)를 기필코 수호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15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세계개독교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독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개신교단협의회/ 사)한국기독교단협의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2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1. 8. 31(화)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1. 9. 09(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1. 9. 3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① 납부일: 2021. 8. 31(화)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2. 2. 7(월)~8(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 시위원회서기 목사 김명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 전국 여교역자국



정혜위원장 조종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고문 정부영 목사
대림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복음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 직
임 원 단

전 국
여 교 역 자 국
부 장

예배부장	신앙부장	복지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	재정부장	행정부장	기획부장	행사부장	친교부장
기성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	동계교회 김순자 목사	간파서교회 이복순 목사	군음순복음교회 김영애 목사	대전대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성령교회 최정희 목사	후계교회 김진애 목사	일신교회 조연희 목사	순복음(가톨릭)교회 이영순 목사	순복음(가톨릭)교회 조은혜 목사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사상순복음교회 홍현자 목사	예배(가)교회 정예스더 목사	순복음(가)교회 이현옥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순복음교회 김정희 목사	사랑(가)교회 서석자 목사	종성순복음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가)교회 김현자 목사	목자교회 김현자 목사	불광교회 서영남 목사
충남지방회 지부장	충서지방회 지부장	충주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예수성교회 한창수 목사	서산성교회 오수경 목사	행복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세명교회 정금자 목사	순복음(가)교회 이순애 목사	신복음(가)교회 김영옥 목사	신복음(가)교회 황연선 목사	신복음(가)교회 정복애 목사	신복음(가)교회 심연옥 목사	신복음(가)교회 심연옥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 국 여 교 역 자 국

국 장 백영자 목사